

◆성거산성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산길 394, 전화 041-584-7199)

경기도와 충청북도 경계선에 자리 잡고 있는 성거산 성지는 천안시 북면 납안리 46-1번지로 되어 있다. 한국의 성지 중에서 보기 드물게 해발 500m의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성지는 차령산맥 줄기로 뻗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봄, 가을에는 꽃들과 단풍으로 찾아 온 순례자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성거산이란 명칭은 고려 태조 왕건이 수행원들과 함께 성환 지역에 머무르면서 잠시 쉬는 동안 오색구름이 맴돌며 신령한 기운이 감도는 모습을 보고 '거룩할 성(聖)'자에 '거할 거(居)'자로 이름을 지어준 다음 이 산에서 제사를 지낸 데서 유래한다. 또한 태조 이성계와 세종대왕도 온양 온천에 목욕을 하러 올 때마다 이곳 성거산에 들려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이곳 성거산 성지 주변은 박해 때 신앙의 선조들과 순교자들이 피신하여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삶의 터전인 교우촌 7개가 산재되어 있어 선조들의 신앙의 향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다. 1860년대부터 1920년 사이에 세워진 교우촌을 보면 서덕골(서들골), 먹방이, 소학골, 사리목, 매일골, 석천리, 도촌 등이 있었으며, 이 교우촌 중 목천 서덕골 교우촌은 뮈텔 주교가 배티 삼박골 교우촌까지 사목 방문을 할 때 거쳐 가는 경로였다. 또한 서덕골 교우촌은 한국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의 백부 최영렬이 이주해 살던 곳으로, 1839년 기해박해 이후 최양업 신부의 둘째 아우인 최선정 안드레아가 맡겨져 성장한 곳이며 최양업 신부도 종종 드나들었던 곳이다.

특히 소학골 교우촌은 1866년 병인박해 당시 칼레(Calais, 姜) 신부와 페롱(Feron, 權) 신부가 박해를 피해 머물다 중국으로 탈출한 곳이고, 박해가 끝난 뒤에도 뮈텔(Mutel, 閔德孝) 주교, 두세(Doucet, 丁) 신부, 베르모렐(Vermorel, 張) 신부가 거쳐하거나 순방하던 곳이다. 칼레 신부와 페롱 신부는 병인 박해 때 동료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체포되자 전교 여행을 중단하고 한실(현 경북 문경군 마성면 성내리) 교우촌에서 숨어 지냈다. 그러다가 포졸들에게 쫓기면서 연풍을 지나 괴산과 진천을 거쳐 배티 삼박골 교우촌에 머무르다가 마지막으로 소학골에 와서 페롱 신부와 함께 잠시 은신하다가 조선을 떠난 유서 깊은 교우촌이다.

또한 소학골 교우촌에는 병인박해시 10명의 순교자가 탄생했는데, 5명은 공주 감영에서 참수형을 당했고 나머지 5명은 서울 포도청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공주 감영에서 참수당한 최천여 베드로, 최종여 라자로, 배문호 베드로, 고 요셉, 채서방 머느리는 성거산 성지 제1줄무덤에 안치되어 있다. 현재 제1줄무덤에 총 38기, 제2줄무덤에 총 36기의 묘봉이 있는데, 시신(屍身)들이 겹쳐 묻혀 있어 실제 이곳에 안장된 순교자의 수는 훨씬 더 많다고 한다. 1959년 미군의 공군기지가 성거산 정상에 주둔하면서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 상에 있었던 묘봉 수가 총 107기였다고 이장(移葬) 작업에 참여한 6명의 증언이 있었다. 따라서 이곳은 병인박해 때 내포지방에 살다가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수많은 무명 순교자들의 안식처이다.

하느님과 진리를 위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함을 생명을 바쳐 증거한 순교자들의 신앙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고 못자리가 되었다. 그동안 오고가는 사람도 없이 벌 · 나비 · 짐승들만이 함께 했던 성거산 성지의 무명 순교자들은 침묵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다.

성지 현황을 보면 제1줄무덤에서 제2줄무덤까지의 거리가 약 530m 정도로, 가는 동안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수 있도록 14처가 설치되어 있고, 넓은 성모광장에는 야외제대와 신자석이 마련되어 있어 야외미사를 봉헌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또한 순례자들이 식사를 하고 쉴 수 있는 쉼터도 마련되어 있다. 제2줄무덤부터 시작하는 2.1km 거리의 '순교자의 길'에는 순교자와 관련된 많은 조각품과 한국의 103위 성인과 성거산(소학골) 출신 순교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55개의 대형 호롱등이 설치되어 있어 전구하며 조용히 묵상할 수 있다. 2011년 5월 7일에는 성거산 아래 성지 초입에 건립한 성당과 수산나 피정의 집에 대한 봉헌식을 가졌다.

한편 교우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소학골 교우촌에는 박해 때 교우들이 살던 집터와 태풍에 의해 쓰러진 돌 배나무가 남아 있어 오랜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성거산 성지는 깊은 산골에 위치해 소음이 없으며 공기가 맑고 전망이 아름다워 한 번 순례를 온 이들은 꼭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곳이다. 특히 계절마다 무명 순교자를 상징하는 각종 야생화가 피어 군락을 이루며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2008년 12월 22일 성거산 성지는 '천안 성거산 천주교 교우촌터'라는 명칭으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175호로 등록되

었다. [출처 : 대전교구 홈페이지, 내용 일부 수정(최종수정 2013년 9월 22일)]

박해 시대의 사목 중심지 소학골

새로 찾은 교회 사적지 중 하나는 목천의 '소학골'(일명 씨아골 또는 쇠약골)이다. 현재의 행정 구역은 충남 천안시 북면 납안리. 독립 기념관 뒤편의 흑성산 가까이 있는 성거산(579m)의 동쪽 계곡이다. 지금 이곳을 가려면 북면 도촌리를 거쳐 도보로 가거나 천안에서 성거읍을 거쳐 입장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나 있는 성거산 통신 도로(입장면 시장리)를 타고 가면 된다. 차량을 이용하려면 두 번째 노정을 택해야 한다.

이제 소학골은 폐동이 되었고 그 아래 '사리목'에 세 집이 남아 있는데, 그마저도 농한기에는 두 집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1910년 무렵만 해도 소학골과 사리목에서 모두 공소가 치러졌으며, 성거산 남쪽에 있는 옛 교우촌인 목천의 서덜골(일명 서덕골)과 매일골, 먹방이(현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송전리)에도 많은 신자들이 살고 있었다. 이후 1930년대까지 신자들이 계속해서 이주하면서 공소는 그 아래쪽의 마을로 이전되었고, 지금은 목천의 송전 공소만이 유지되고 있다.

성거산 자락의 깊은 산중에 신자들이 정착하여 신앙 공동체를 일구기 시작한 것은 교회사에서 전이형(轉移形) 공동체가 사라지고 정주형(定住形) 공동체가 형성되는 1830년대였다. 최양업(토마스) 신부의 백부인 최영렬도 이 무렵에 '서덜골' 교우촌으로 이주하였으며, 기해 박해 이후에는 최 신부의 둘째 아우인 최선정(안드레아)이 이곳에서 성장하였다.

박해가 계속되면서 서덜골 이웃의 소학골에도 신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 척박한 골짜기에서 움막을 짓고 생활하거나 화전을 일구어 얻은 오죽짚은 식량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도 신앙만은 잃지 않았다. 실제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이 깊고 높은 산중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서덜골과 소학골 교우촌은 산자락과 골짜기로 이어지는 진천 백곡의 배티, 삼박골 교우촌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1864년 칼래(Calais, 姜) 신부는 자신의 거처를 경기도 손골(현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에서 소학골로 옮겼다. 교구장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가 사목 관할 구역을 조정하면서 경상도 서부에서 충청도·경기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비교적 건강이 좋은 칼래 신부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소학골은 칼래 신부의 여름 휴식처요 사목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소학골은 독수리 등지처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호랑이가 득실거리고, 숲이 우거진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숨어 살기에는 아주 좋은 피신처입니다. 마치 들짐승처럼 사방에서 쫓기는 선교사가 평화로운 이곳에서만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어느 누구에게 들킬 염려가 없이 초가집에서 나와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도 있고,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칼래 신부가 파리의 신학교 교장 신부에게 보낸 1867년 2월 13일자 서한).

칼래 신부는 때때로 백곡의 삼박골로 가셔도 휴식을 취하였다. 이처럼 소학골·삼박골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칼래 신부는 경상도 지역을 순방하던 도중에 1866년의 병인박해를 당하게 되었다. 신부는 그때부터 포졸들에게 쫓기면서 문경 인근의 교우촌과 동굴을 오가며 은신하였으나, 발각될 위험이 커지자 여름 휴식처가 있는 소학골 교우촌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하였다. [출처 : 차기진, 사목, 2000년 5월호]

순교자들의 본당 소학골

1866년 5월 10일 한실(현 경북 문경군 마성면 성내리) 교우촌을 출발한 칼래 신부는 이틀에 200리를 걸어서 연풍, 괴산, 진천을 거쳐 배티의 삼박골에 도착하였다. 신부는 삼박골의 거처에서 신자들에게 보호를 받으며 5월 말까지 보름 남짓 머물면서 상황을 살피다가 목천 소학골로 거처를 이전하였다. 한편 그의 동료 페롱(Feron, 權) 신부도 7월에는 소학골로 와서 칼래 신부와 함께 생활하였으며, 10월 초에는 둘이 함께 소학골을 떠나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소학골에 박해의 풍파가 몰아친 것은 이로부터 얼마 안 되어서였다. 이때 포졸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

은 신자들이 풍비박산하여 도망하였으나, 최천여(베드로)와 최종여(라자로) 형제, 칼레 신부의 복사를 한 배문호(베드로), 고 요셉, 채씨 며느리 등은 교우촌에 남아 있다가 체포되고 말았다. 포졸들은 즉시 이들을 공주로 압송하였고, 5명 모두 공주 영문의 옥중에서 교수형을 받아 1866년 12월 14일(음력 11월 8일)에 순교하였다. 순교 후 이들의 시신은 한 신자에게 거두어져 소학골에 안장되었다. 그 후에도 소학골에서는 다시 몇몇 신자가 체포되어 서울 포도청에서 순교하였다.

순교자 배문호의 무덤은 현재 사리목에서 소학골로 가는 길목에 안장되어 있다. 그러나 나머지 순교자들의 무덤은 찾을 길이 없다. 후손들 대부분이 오랫동안 타지로 떠돌다가 신앙의 자유 이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탓에 선조들의 무덤에 대해 전혀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해가 끝난 뒤 선교사들은 다시 성거산 골짜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신자들을 찾았다. 특히 두세(Doucet, 丁) 신부는 서덜골에 여름 휴식처를 두었으며, 베르모렐(Vermorel, 張) 신부도 한때 이곳에 거처하였다. 1900년 1월 8일 제8대 조선교구장 뮌텔 주교는 이 지역을 순방하고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일기에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곳 순교자의 무덤과 교우촌 신자들의 줄무덤이 사적지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출처 : 차기진, 사목, 2000년 5월호]

성거산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의 교우촌 설립 현황

- 1) 서덕골 교우촌(1884년, 두세 신부) : 목천면 송출리
- 2) 먹방이 교우촌(1884년, 두세 신부) 공소 신자수 128명 : 목천면 석천리
- 3) 소학골 교우촌(1888년, 두세 신부) 공소 신자수 114명 : 북면 납안리
- 4) 매일골 교우촌(1895년, 퀴를리에 신부) : 목천면 송출리
- 5) 사리목 교우촌(1901년, 드비즈 신부)
- 6) 석천리 교우촌(1913년, 공 베드로 신부) 112명 : 목천면 석천리
- 7) 도 촌 교우촌(1919년, 공 베드로 신부) 110명 : 북면 납안리
- 8) 납안리 교우촌(1920년, 공 베드로 신부) 51명 [출처 : 성거산 성지 홈페이지]

성거산 성지의 순교자들

소학골에 박해의 풍파가 몰아 친 것은 서양 선교사들(리델, 페롱, 칼레 신부)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얼마 안 되어서였다. 포졸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신자들은 풍비박산하여 도망하였으나, 최천여(베드로), 최종여(라자로) 형제와 칼레 신부의 복사를 한 배문호(베드로), 고 요셉, 채 서방 며느리 등은 교우촌에 남아 있다가 체포되고 말았다.

포졸들은 즉시 이들을 공주로 압송하였고, 5명 모두 공주 영문(營門)의 옥중에서 교수형을 받아 1866년 12월 14일(음력 11월 8일)에 순교하였다. 이 5명의 순교자들은 절두산 성당에 보관중인 병인박해 치명자 명단 509-513호에 나오는 분들이다. 순교 후 이들의 시신은 청주 절골에 사는 신자 강치운 씨에 의해 거두어져 소학골에 안장되었다. 그 후에도 소학골에서는 다시 몇몇 신자가 체포되어 서울 포도청에서 순교하였다.

절두산 성당에 소장되어 있는 병인박해 <치명일기>에 기록된 순교자 5분의 신앙생활과 옥중생활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천여(베드로)

충정도 목천 소학골에 살면서 열심히 묵상기도와 염경기도를 하며 늘 치명의 뜻을 가지고 살았다. 병인년 10월 10일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잡혀 관청에 끌려 들어가 천주학을 배반하도록 권유를 당하였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자, 다시 투옥 옥중에 들어가 갇은 고문과 박해를 당하였다. 그러면서도 심한 고문에 못이겨 배교한 교우들을 찾아다니면서 '금세는 잠깐이요 후 세의 세계는 영원하니 어찌 잠시 살기 위해 배반하느냐.'며 눈물을 흘리며 설득시키다가 당시 나이 52세로 병인년 음력 11월 8일 치명하였다.

최종여(라자로)

최 베드로(천여)의 아우로 목천 소학골에서 그 형과 함께 열심히 수계생활을 하다가 병인년 10월 10일에 목천 포교에게 잡혔다. 혹독한 역병으로 거의 사경에 이르러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니 포교들이 목을 매어 끌고 본관으로 가 며칠 갇혔다가 공주 진영으로 가서 형 베드로와 같이 11월 초파일에 나이 42세로 치명하였다.

배문호(베드로)와 고의진 요셉

이 분들은 충청도 목천 소학골에 살았고, 열심히 수계 생활하며 부모에게 배우고 믿음을 다졌다. 하옥된 후 옥에서 계명을 풀어 읽으니,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으며 믿음은 얼마나 되느냐 대답하며 저는 죽어도 천주학은 배반하지 못하겠다 하며 관가에 들어갔다. 치명하기를 원한 배문호는 아내와 의논하고 뜻을 지키며 강신부가 주신 철사 띠를 주야로 항상 띠고 다녔으며, 강 신부로부터 고신극기를 배우고 따라다니며 강 신부의 복사생활 하였다. 병인년 10월 초파일에 목천 포교에게 고 요셉과 함께 잡혀 관가에 들어가 배주배교(背主背敎 :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종교를 배반하는 것)하라 하였다. 만만코 죽사와도 절대 배반하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십계명을 풀어 이야기하니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으며, 믿음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니 믿음은 '부모에게 배우고 믿음은 아직도 다하지 못 했나이다.'고 말하니 즉시 하옥 2차, 3차 물고문에 형벌이 이루 말할 것도 없었다. 계속 천주를 배반하라 명하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조만과를 서로 통경하니 경문히 자신만만하였다. 순상(順喪 :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먼저 죽는 일) 분부에 공주로 보내 11월 초파일에 끌려가면서도 경문(經文 : 기도할 때 외는 글)을 소리 높여 읽었다. 창교배(인솔자)도 즐겨 듣고, 배교한 사람도 이 모습을 보고 즉시 통회하고 따라 합세하여 공주 진영(鎭營)에 들어가 갇은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도무지 굴하지 않자 즉시 옥에 하옥 병인년 11월 초파일에 치명하니 배문호 24세였고 고 요셉 나이는 알지 못 하였다.

이때 모친에게 3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님도 뒤를 따라 오소서. '동곳'(머리를 감아 상투 꽂는데 필요한 기구)을 보시며 저를 생각해 주소서. 나와 고 요셉은 이곳 감영에서 너무 목말라 오줌으로 푸나이다." 하였다.

채씨 며느리

위의 네 분과 함께 공주에서 같은 날 순교하였지만 치명일기에는 이름만 나와 있다. 채씨 며느리는 순교자 최천여의 며느리로 보고 있다. 이 5분의 시신은 당시 청주 절골에 사는 순교자 최천여의 사돈뻘 되는 강치운이 이곳 소학골에 묻었다고 한다.

<치명일기>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병인박해 치명자사적> <우포도청 등록>의 자료로부터 병인박해 때 순교한 소학골 출신 신자들이 서울 포도청에서 순교한 분들은 다음과 같다(한국 교회사 연구소 차기진 씨의 '한국 교회사 사적지 재발견'에서)

1. 배 (바오로) : 배 안드레아의 부친, 목천 소학골 거주, 서울에서 치명, 62세(또는 61세) 1868년 6월 23일 (또는 1867. 6. 19).
2. 배 (안드레아) : 배 바오로의 아들, 서울에서 치명, 35세 1878년 4월 10일.
3. 배화첨(베드로) : 배문호 조부, 면천 사람, 목천 소학골 거주, 서울에서 교수형, 56세 1868년 5월 17일.
4. 배명중(바오로) : <우포도청등록>의 배원성, 배화첨의 차남, 목천 소학골 거주, 공주 질울로 이주, 서울 좌포도청에서 치명(致首), 54세(또는 50세) 1878년 5월 23일(또는 1878. 4. 10).
5. 배문모(요한) : <우포도청등록>의 배일용, 배명주의 아들, 좌포도청에서 치명(致首), 19세 1878년 5월 23일.

3명의 성직자들을 중국으로 탈출시킨 11명의 교우들이 순교

병인박해 때 한국 천주교회는 12명의 성직자 중 9명의 성직자가 체포되어 순교하고, 3명(폐룡, 칼레, 리델) 신부가 난을 피해 신창군 용당포에서 배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탈출하게 되었다.

첫 번째 탈출은 리델 신부였다.

11명의 용감한 교우들이 배를 마련하여 병인년 6월 29일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에 신창 용당포를 출항하여 7월 7일 중국 해안에 도착 천진으로 가서 프랑스 함대를 만나 함장 로즈(Rose) 제독에게 한국의 박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두 번째 탈출은 칼레, 폐룡 신부였다.

프랑스 함대가 조선 해안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교우들의 협조로 배를 마련하여 프랑스 함대가 와 있다는 곳을 찾아 떠났다. 그러나 함대를 찾지 못하고 중국으로 탈출하였다. 이때 신부들을 배로 탈출시키고 돌아온 교우들이 체포되어 순교하였는데 이들이 순교 후 성거산에 모셔졌다고 한다. [출처 : 성거산 성지 홈페이지]

◆배티성지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배티로 663-13, 전화 043-533-5710)

천혜의 피신처라 할 수 있는 배티는 충북 진천군과 경기도 안성시가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위치한 깊은 산골이다. 현재 진천에서 배티를 거쳐 안성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말끔하게 포장돼 있고, 좌우의 경부 고속도로와 중부 고속도로 그리고 둘을 연결하는 평택 제천 고속도로가 성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이 지역은 서쪽으로 안성, 용인, 서울, 남쪽으로는 목천, 공주, 전라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문경 새재를 지나 경상도로 이어져 박해 시대에는 내륙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이처럼 각 지역과 쉽게 연결되면서도 깊은 산골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1830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우촌이 형성돼 왔고 최양업 신부가 이 지역을 근거로 전국을 다니며 사목 활동을 해 왔다. 배티 인근의 교우촌으로는 은골, 삼박골, 정삼이골, 용진골, 절골, 지구머리, 동골, 발래기, 통점, 새울, 지장골, 원동, 굴티, 방축골 등 배티를 포함해 모두 15곳이나 된다.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에 위치하고 있는 배티는 동네 어귀에 돌 배나무가 많은 배나무 고개라서 ‘이치(梨峙)’라고 불렸고 이는 다시 순 우리말로 ‘배티’라고 불리게 됐다.

배티 인근에는 명승지와 성지들이 많이 있어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함께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안성에서 미리내 성지를 거쳐 용인 민속촌과 자연농원(에버랜드) 또는 죽산 칠장사를 거쳐 양지에 있는 골배마실과 은이 성지를 갈 수 있다. 또 남쪽으로는 유관순 기념관과 독립 기념관 그리고 온양 온천이나 현충사를 가는 것도 가능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배티를 가기 위해서는 우선 진천으로 가서 백곡을 거쳐 양백리로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하거나 안성에서 석남사로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백곡 성당이 있는 백곡에서 배티까지는 약 4km 정도이므로 도보로 순례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진천에서 18km 정도 지점에 ‘삼박골 비밀 통로 순교자의 묘’라는 푯말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백곡 공소가 길 왼쪽에 서 있다. 여기에는 병인박해 당시 순교한 윤 바르바라와 박 바르바라의 묘가 있는데 이들은 친시누이올케 관계이다. 순례객은 여기서부터 순교선조들의 향기를 조금씩 느낄 수 있다.

‘삼박골 비밀 통로’라는 푯말을 지나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면 산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이 나온다. 여기서 배티까지는 약 2km 정도로 걸어서 4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 길은 박해 시대에 배티로 넘어가던 비밀 통로였는데 무성한 수풀 사이로 난 좁다란 길은 믿음 하나로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던 당시 선조들의 가쁜 숨결을 느끼게 한다. 삼박골은 베르뇌 장 주교와 폐룡 권 신부가 박해를 피해 은신했던 교우촌으로 현재 공소는 없어지고 순교자 이 진사의 부인과 딸의 묘소만이 남아 있다.

푯말이 서 있는 곳에서 안성 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드디어 배티 성지가 나온다. 입구 들머리에는 2012년 4월 15일 축복식을 가진 고딕 양식의 최양업 신부 선종 150주년 기념성당이 넓은 광장과 함께 웅장한 자태

를 드러내고 있다. 성당 맞은편에는 아담한 배티침터도 새로 마련되었다. 성당 오른쪽으로 오르막 길에 들어서면 ‘순교 현양’이라고 새겨진 비석이 먼저 순례객을 맞는다.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꺾지 않았던 선조들의 굳은 정신이 단단한 비석을 통해 느껴진다.

100m 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1997년 6월 봉헌된 최양업 신부 기념성당이 있고, 그곳에서 시작되는 오솔길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십자가의 길 14처가 세워져 있는데 특이하게도 각 처가 모두 하나씩의 커다란 맷돌에 새겨져 있어 순교자들이 겪어야 했던 박해의 육중한 무게를 보여주는 듯하다.

14처가 끝나는 곳에는 자연석 그대로의 제대와 함께 나무 밑동을 그대로 잘라 만든 야외 성당이 있고 산기슭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서 있다. 제대 위의 촛대 역시 14처와 마찬가지로 맷돌로 만들어져 있고 제대 앞과 주위에는 나무 등걸로 이루어진 좌석들이 늘어서 있다.

최양업 신부가 머물던 사제관과 무명 순교자 묘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모상을 지나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산로를 넘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성지 입구로 다시 내려와 배티 고개를 향해 약 400m 정도 올라가면 길가 오른쪽에 ‘최양업 신부 성당터’라고 쓴 입간판이 서있는데, 이곳에서 103위 성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우측에 최양업 신부가 여름 장마철이면 머물던 성당 겸 사제관이 말끔하게 복원되어 있다.

1년에 5,000리에서 7,000리까지 걸어 다니며 심할 때에는 한 달에 겨우 나흘밖에 못 잤다는 최양업 신부는 전국을 앞마당처럼 다니다가도 장마철에는 여기에 머물며 “천주가사(天主歌辭)”를 집필했고 기도서인 “성교공과(聖敎功課)”를 번역했다. 그러나 그가 기거하며 성당과 사제관으로 사용하던 두 칸짜리 옛 초가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다.

1999년 최양업 신부가 머물렀던 성당 및 사제관 터를 확인한 후 그 부근에 있던 농가를 매입해 철거하고, 2001년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복원한 후 최양업 신부 동상도 세웠다. 이 집은 이미 1849년 페레올 주교의 명으로 다음해 다블뤼 신부(후일 제5대 조선 대목구장)가 설립하여 페낭 신학교 유학생을 준비시키는 조선교구의 소신학교로 사용했었고, 최양업 신부뿐만 아니라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제들의 사제관과 성당으로도 활용했었다.

여기서 잘 포장된 배티 고개 길을 따라 900m 정도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면 ‘14인 순교자 묘역 입구’라는 뜻말이 서 있다. 이곳은 배티에 숨어 신앙생활을 하던 선조들이 포졸들에게 잡혀 안성으로 끌려가다 집단으로 순교한 곳이다. 이곳에는 모두 14기의 무명 순교자 묘가 있다. 이 외에도 배티 성재골에 6인 무명 순교자의 묘가 있으며, 신원이 알려진 순교자 묘로 백곡 공소에 2기, 인근 교우촌에 6기가 더 있어 배티 인근에는 총 28기의 순교자 무덤이 산재해 있다.

배티를 중심으로 진천 일대에서 1866년 병인박해와 1868년 무진박해 때에 60여 명의 순교자가 났는데, 그 가운데 교회 순교록과 관변 기록에 그 순교 행적이 전해지는 순교자는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시복된 8명을 포함하여 모두 34명에 이른다. 나머지는 배티 일대에 이름 없는 묘소들로 산재해 있다.

청주교구는 이처럼 유서 깊은 배티 성지를 성역화하고 한국교회의 두 번째 사제인 최양업 신부의 영성을 본받고 현양하기 위해 최양업 신부 사제 서품 150주년을 맞은 1999년 양업 교회사연구소를 설립했다. 이 연구소는 우선적으로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선교 활동과 신앙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현양 활동과 시복시성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12월 3일 ‘양업 영성관’(피정의 집)을 신축해 봉헌식을 거행했으며, 복원된 최양업 신부 옛 성당 입구에 103위 순교 성인 계단과 양업 영성관 입구의 시복시성 대상 순교자 묵주알 계단도 함께 조성하였다. 양업 영성관은 지상 2층 규모로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어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피정이 가능하다. 또한 청주교구는 2009년 교구 내의 대표적 성지인 배티와 연풍을 잇는 84.6km의 도보성지 순례길을 마련하여 순례객들을 돕고 있다.

2011년 3월 4일 배티 성지의 ‘조선교구 신학교지’와 ‘무명 순교자 14인 묘소’ 그리고 ‘삼박골 모녀 순교자 묘역’ 등 3개소가 충청북도 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되면서 진천군 및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성지 개발에 들어갔다. 2011년 4월 15일 성지 들머리 주차장의 조립식 강당이 있던 자리에 최양업 신부 선종 150주년 기념성당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고, 2012년 4월 15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고딕 양식 기

념성당을 완공해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이어 2012년 10월 10일에는 최양업 신부의 일대기와 박해시대의 역사와 신앙 선조들의 삶을 보여줄 최양업 신부 박물관 기공식을 가졌고, 2014년 4월 11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순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최양업 신부 박물관 축복식을 가졌다. 그리고 같은 해 최양업 신부 성당터에 십자가의 길 14처를 새로 조성하고, 복원된 성당 겸 사제관으로 사용된 초가집 마당에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 복녀 이성례 마리아 흉상을 새로 제작해 설치하였다. 또한 배티 일대에 산재한 15개의 박해시대 교우촌을 산길로 잇는 배티 순례길 조성 및 삼박골 피정센터 등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주평국, 하늘에서 땅 끝까지 - 향내나는 그분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톨릭출판사, 1996, 내용 일부 수정 및 추가(최종수정 2015년 5월 26일)]

최양업 신부와 배티의 무명 순교자

최 신부는 이후 경상도로 거처를 옮길 때까지 약 2년 동안 배티의 동굴을 사목 거점으로 삼아 서양 선교사들이 다니기 어려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오지의 교우촌들을 순방하였다. 그리고 휴식 기간에는 다시 이곳에 들러 이웃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전하거나 동생들을 돌보았으며, 사목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신자들을 위해 "천주가사"를 저술하였다.

실제로 최 신부의 사목 순방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졌다. 전국을 안마당 드나들 듯이 하면서 교우촌을 찾아 수십, 수백 리를 걸어야만 했고, 때로는 신자 한 두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골짜기를 올라가야만 하였다. 또 어느 해에는 밀고자 때문에 한겨울에 신자 집에서 쫓겨 나와 맨발로 산야를 헤맨 적도 있었다. 이러한 그의 삶은 곧 그리스도의 수난을 따르려 한 순교자적인 삶이었다.

원컨대 지극히 강력하신 저 십자가의 능력이 저에게 힘을 응결시켜 주시어, 제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게 하시기를 빕니다. ... 우리의 모든 희망은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고, 하느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서 죽고 함께 묻히는 것이 소망입니다(최양업 신부의 1846-1847년 서한 중에서).

이처럼 그는 조국 땅을 밟은 뒤 11년 6개월 동안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는 신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과로와 장티푸스로 1861년 6월 15일 경상도 문경에서 선종하였으니, 만 40세의 한창 때였다. 그의 시신은 문경 부근에 가매장되었다가 그 해 10월 말 신학교가 있던 제천 배론으로 옮겨져 안장되었다. 이로써 최양업 신부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백색 순교자'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배티 일대는 이러한 최 신부의 신앙과 땀이 배어 있다는 두 번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배티 성지가 지니고 있는 세 번째 의미는 순교자들의 고향이라는 점이다. 현재 이곳 배티 골짜기에는 순교자들의 무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며, 그중에는 무명 순교자들의 무덤들이 섞여 있다.

한편 최양업 신부가 선종한 뒤에는 프티니콜라 신부가 1858년부터 1862년까지 이곳 배티에 거처를 정하고 충청, 경상, 경기, 강원 일부의 교우촌을 순방하였다. 이어 칼래 신부가 삼박골에 와서 인근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곤 하였는데, 그는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문경에서 쫓겨 삼박골, 북면의 소학골을 거쳐 내포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오랜 박해가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제 신자들은 피신처에서 나와 새 복음의 터전을 닦아 나갔다. 배티, 용진골, 삼박골은 공소로 승격되었고, 배티에는 교리 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신자들이 새로운 생활 터전을 얻기 위해 하나 둘 이곳을 떠남으로써 어느 교우촌은 단 한 명의 신자, 단 하나의 가옥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 일대는 순교자들의 보금자리요, 최양업 신부나 선교사들의 고난 어린 발자취가 스며 있는 곳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최양업 신부의 현양 운동에 동참하려는 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이를 통해 그분의 삶과 신앙이 길이 남게 될 것이다. [출처 : 차기진, 사목, 1999년 7월호]

탄생과 성장

최양업(崔良業) 토마스 신부는 1821년 3월, 충청남도 청양의 다락골 인근에 있는 새터 교우촌에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순교자 이성례 마리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던 부친을 따라다니다가 경기도 부평을 거쳐 안양에 있는 수리산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이 수리산 마을은 그 뒤 신자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비밀 신앙 공동체로 변모하였다.

이에 앞서, 조선 대목구의 전교를 위임받은 파리 외방 전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파견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경 감시가 심한 데다가 박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으므로, 서양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난관을 극복하고 처음으로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는 프랑스 출신의 성 모방 베드로 신부였다.

1835년 말, 조선 천주교회에서 파견한 밀사들의 안내로 입국한 모방 신부는 곧바로 전국의 신앙 공동체들을 순회하기 시작하였고, 이듬해 초에는 부평에 있는 최경환 프란치스코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최양업 토마스를 한국의 첫 신학생으로 선발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15세였다.

신학생으로 선발된 최양업 토마스는 1836년 2월 6일 서울의 모방 신부 댁에 도착하여 라틴어 수업을 받았다. 이어서 모방 신부가 신학생으로 간택한 최방제 프란치스코가 3월 14일에, 김대건 안드레아가 7월 11일에 각각 도착하여 함께 생활하였다.

마카오 유학과 부제 서품

최 토마스는 1836년 12월 2일, 동료 신학생들과 함께 성경에 손을 얹고 순명을 서약하고, 다음 날 마카오 유학길에 올랐다. 그리하여 중국 대륙을 남하하여 다음 해 6월 7일 마카오에 있던 파리 외방 전교회 극동 대표부에 도착하였으며, 이때부터 그곳에 임시로 설립된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였다.

마카오에서의 유학 생활은 1842년까지 계속되었는데, 1837년 11월에는 동료인 최방제 프란치스코가 열병으로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고, 1839년에는 마카오의 소요 때문에 필리핀의 마닐라로 장소를 옮겨 수업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다가 같은 해 말에 마카오로 돌아왔다.

그러나 신학생 최 토마스는 아직 공부가 끝나기도 전인 1842년 4월에 마카오를 떠나게 되었다. 한국과 통상 조약을 원하는 프랑스 함대에서 통역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때 극동 대표부의 장상인 리브와(Libois) 나폴레옹 신부는 박해로 끊어진 조선 천주교회와 연락을 기대하고 최 토마스와 김 안드레아를 각각 다른 프랑스 함대에 승선토록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함대가 남경에 도착한 다음에 더 이상의 북진을 원하지 않게 되자, 최 토마스와 김 안드레아는 프랑스 함대에서 내려 요동으로 가게 되었다. 조선으로 들어가고자 입국로를 탐색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최양업 토마스는 만주의 소팔가자로 거처를 옮겨 조선 대목구의 부주교인 페레올(Ferreol) 요한 주교에게 계속 수업을 받았고, 1843년에는 리브와 신부를 통해 프랑스 파리의 무염 성모 성심회에 가입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조국에서 일어난 박해와 순교자들의 소식을 들었다. 이때 그는 프랑스로 귀국해 있던 스승 르그레즈와(Legregeois) 베드로 신부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저는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을 따라서 공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저의 신체가 참으로 딱합니다. 그리스도 용사들의 것처럼 장렬한 전쟁에 저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한 내 동포들이며, 이렇듯이 용감한 내 겨레인데, 저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함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 종들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넘치는 자비와 당신 팔의 전능을 보이소서. 언제쯤이나 저도, 신부님들의 그다지도 엄청난 노고와 저의 형제들

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수난에 부족한 것을 채워, 구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까요?”

신학 수업을 계속하던 최양업 토마스는 1844년 12월 10일경에, 동료 김대건 안드레아와 함께 페레올 주교에게 부제품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부제가, 사제품을 받고서 페레올 주교, 성 다블뤼(Daveluy) 안토니오 신부와 함께 조선에 입국한 뒤에도, 소팔가자에 남아 있으면서 매스트르(Maistre) 요셉 신부와 함께 귀국로를 찾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사제 수품과 귀국

귀국로를 탐색하는 동안 최 토마스 부제는 조선 천주교회의 밀사들을 만나, 1846년의 박해와 동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스승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서한을 보내 조국의 애통한 소식을 알렸다.

“마침내 지루했던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저의 동포들한테 영접을 받으리라 희망하면서 크게 기쁜 마음으로 용약하여 변문(한중 국경의 성문)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변문에 도착하여 보니, 이 희망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소식에 경악하였고, 저와 조국 전체의 가련한 처지가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애통하였습니다. …… 특히 저의 가장 친애하는 동료 안드레아 신부의 죽음은 신부님께도 비통한 소식일 것입니다.”

조선 천주교회 밀사들의 만류로 귀국을 포기한 최 토마스 부제는 극동 대표부가 이전해 있던 홍콩에 도착한 뒤에 ‘한국 순교자들의 행적’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귀국로 탐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847년 8월에는 프랑스 군함을 타고 조선의 해안에 도달하였지만 밀사들을 만나지 못하여 귀국에 실패하고 말았다.

다시 상해로 거처를 옮긴 최양업 토마스 부제는 1849년 4월 15일, 마침내 서가회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이때 그에게 사제품을 준 사람은 예수회원으로 강남 대목구장으로 있던 마레스카(Maresca) 주교였다. 사제품을 받은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그해 5월에 상해를 출발하여 중국 요동 지방으로 가서 성 베르뇌(Berneux) 시메온 신부 아래서 사목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1월에 매스트르 신부를 다시 만나 귀국을 시도한 끝에, 12월 3일 조선 천주교회의 밀사들을 만나 귀국하게 되었다. 이때 매스트르 신부는 발각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조선에 입국하지 못하였다.

사목 활동과 선종

귀국하자마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페레올 주교와 다블뤼 신부를 만난 뒤, 각처에 숨어 있는 신자들을 순방하기 시작하였는데, 1850년 초부터 6개월 동안 5개 도와 5천여 리를 걸어다니며 3,815명의 신자를 방문하였다. 이후, 진천 배티를 사목 중심지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사목 활동은 11년 6개월여 동안 꾸준히 계속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휴식 기간을 이용하여 한문 교리서와 기도서를 한글로 번역하였고, 선교사들의 조선 입국을 도왔으며, 신학생들을 말레이 반도에 있는 페낭(Penang) 신학교로 보냈고,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였다.

물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신자들을 순방하기란 쉽지 않았다. 도중에 최 토마스 신부는 서양인으로 오인을 받아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포졸들의 습격으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특히 1859년에는 순방 도중에 발각되어 포졸과 외교인들로부터 흠씬 두들겨 맞고, 주막에서 쫓겨나 반쯤 나체가 된 몸으로 눈 쌓인 밤을 헤맨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그의 신앙과 조국애,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애정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1860년 경신박해 때,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몇 명의 신자들과 함께 경상남도의 한 모퉁이에 갇혀서 대목구장 베르뇌 주교나 다른 선교사들과 연락이 끊긴 채 지내야만 하였다. 이때 그는 스승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다시 서한을 보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조선 천주교회를 도와주십사고 부탁하였다.

“우리를 환난에서 구하소서. 엄청난 환난이 우리에게 너무도 모질게 덮쳐 왔습니다. 원수들이 우리에게 달려 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신 당신의 유산을 파멸시키려 덤벼들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높은 데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대항하여 설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경애하올 신부님들께서 열렬한 기도로 저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느님과 성모님께 도움을 얻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하직 인사가 될 듯합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계속 추적하는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포교지를 여러 신부님들의 끈질긴 염려와 지칠 줄 모르는 애덕에 거듭거듭 맡깁니다.”

다행히 최양업 토마스 신부는 갇혀 있던 곳을 빠져나와 경상도 남부 지방의 사목 방문을 다 마친 다음, 베르뇌 주교에게 성무 집행 결과를 보고하고자 길을 나섰다. 그러나 과로에다 장티푸스까지 덮쳐 1861년 6월 15일에 문경을 또는 진천 배티 교우촌에서 선종하고 말았으니, 이때 그의 나이 40세였다.

이 소식을 들은 베르뇌 주교는, 파리 외방 전교회의 신학교 교장인 알브랑(Albrand)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신심과 열심, 그리고 평소에 보여 준 사제로서의 분별력을 칭송하고, 동시에 그를 잃은 아쉬움을 표시하였다.

“최 토마스 신부는 신심, 영혼의 구원을 위한 불과 같은 열심, 그리고 무한히 귀중한 일에서는 훌륭한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그렇게도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유일한 한국인 신부 최 토마스가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성사 집행 뒤에, 내게 자신의 업적을 보고하려고 서울에 오던 중, 지난 6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착한 신부가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한 소식을 맨 처음 받은 푸르티에(Pourthie) 신부는 그에게 마지막 성사를 줄 수 있을 만큼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 가는 그의 입술에서 아직 새어 나오는 말이 단지 두 마디 있었으니, 그것은 예수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 최 토마스 신부는 12년간 거룩한 사제의 모든 본분을 지극히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성공적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저를 난처하게 합니다. 그가 성무를 집행하던 구역에는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서양 사람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많은 마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서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양업 토마스 신부가 배론 신학교에서 170-180리 지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당시 신학교에 있던 푸르티에 신부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는 곧장 최 토마스 신부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그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아주 열성적으로 부르는 예수 마리아의 거룩한 이름뿐이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선종 뒤, 5개월이 지난 다음, 베르뇌 주교의 주례로 최 신부의 장례가 성대하게 치러졌고, 그의 시신은 배론 신학교 뒷산에 안장되었다. [출처 :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진천 출신 순교자 중 복자 8위

복자 오반지 바오로(1813-1866년)

오반지(吳盤池) 바오로는 충청도 진천의 반지(현,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던 집안 출신으로, 비교적 풍요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장성할 때까지 공부와는 담을 쌓았으며, 혼인한 뒤에는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다 날려 버리고 말았다.

오 바오로가 천주교 신앙을 알게 된 것은 40세가 훨씬 지난 1857-1858년 무렵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날에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가족과 함께 진천의 지장골(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지암리)로 이주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그리스도교적인 체념으로 가난을 참아 견디었으며,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본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 나갔다.

오 바오로의 열심은 이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마자 청주 병영에서 파견된 포졸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지장골로 들이닥쳤다. 그는 한 젊은이와 함께 체포되어 진천에 투옥되었다가 청주로 이송되었으니, 이때가 3월 13일(음력 1월 27일)이었다.

청주 병영으로 압송된 오 바오로는 모진 형벌과 문초 가운데서도 교회 일을 조금도 누설하지 않았으며, 단지 ‘나는 천주교인이요.’라는 말만을 되풀이하였다. 한번은 형벌을 받고 옥으로 끌려갈 때, 형리들이 몽둥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피가 솟아나자, 오 바오로는 대뜸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좋소. 하지만 관장의 명령도 없는데 왜 마음대로 때리는 거요”라고 항의하였다.

당시 옥에는, 오 바오로와 함께 체포된 젊은이와 새로 체포되어 온, 배 바오로라는 교우가 있었다. 관장은 이들 세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으므로 ‘배교한다.’는 한마디만을 얻어 내려고 여러 방법으로 유혹하였지만, 오 바오로는 조금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권면에도 함께 갇혀 있던 동료들은 관장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오 바오로가 옥중에 있을 때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이 적혀 있었다.

“교우로서의 본분을 잘 지키고 남의 빛을 갚도록 하여라. 그리고 만일 체포되면 주님을 위해 순교하도록 하여라.”

관장은 어떠한 형벌과 유혹으로도 오 바오로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는 마침내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이때 오 바오로는 “만 번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는 말로 신앙을 증언하고, 청주 남문 밖으로 끌려 나갔다. 그런 다음 사형 집행을 관장하는 관리가 마지막으로 배교를 유도하려고 종이를 갖다 주자, 그는 끝까지 ‘배교한다는 말을 쓸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오반지 바오로의 옆에 있던 사형 집행인이 그에게 달려들어 군중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오 바오로가 순교한 날은 1866년 3월 27일(음력 2월 11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3세였다. 그가 순교한 날에는 ‘백일청천에 무지개가 떠서 그의 시체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다.’고 한다. 오반지 바오로의 시신은 아들과 신자들 몇 명에 의해 지장골로 옮겨져 그 인근에 안장되었다. [출처 :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오반지 바오로는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사목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cus)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시복미사가 거행된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조선시대 주요 사법기관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며, 또한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서소문 밖 네거리 · 당고개 · 새남터 ·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순교의 길이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은 매년 5월 29일에 함께 축일을 기념한다.

복자 김원중 스테파노(?-1866년)

충청도 진천의 발래기(현, 충북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에 살던 김원중 스테파노는 본디부터 성품이 순량하고 온후하였으며, 그의 열심과 신덕은 교우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의 이웃에는 사촌인 김선화 베드로가 살고 있었다.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진천 관아에서는 이미 발래기 신자들에 대해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으므로, 전갈을 보내와 “다시는 천주교를 봉행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천주교 서적을 관아에 갖다 바치고 직접 관장 앞에서 다짐을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러한 전갈을 받은 발래기 신자들은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대부분 관청으로 서적을 갖다 바치고, 관장 앞에 가서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때 김 스테파노만은 “내가 천주교를 신봉하는데 어찌 배교 행위를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서적도 갖다 바치지 않고, 관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외교인들은 물론, 발래기의 신자들까지도 그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까 두려워 김 스테파노를 원망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신앙을 위해 모든 원망을 감

수하였다.

1866년 11월 10일(음력 10월 4일), 관아에서는 다시 전갈을 보내와 “발래기 사람들은 모두 관아에 출두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전해 들은 김 스테파노는 교우들에게 “이제 들어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두 관아로 갈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달게 받을 정도로 신덕이 깊은 사람만 관아로 가자.”고 말하였다.

이튿날 진천 관아에서 포졸들이 왔을 때, 발래기 신자들 중에서 김 스테파노를 비롯하여 10명만이 자진하여 체포되었다. 그들 일행이 관아로 들어가자 관장은 “일전에 갖다 바친 책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 스테파노는 책을 갖다 바친 적이 없으면서도 “저의 책이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관아에서는 곧바로 그를 가두어 버렸고, 이때 신성순 회장과 2명의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겁에 질려 배교를 다짐하였다.

진천 관아에서는 25일 동안 이들을 가두었다가, 모두 12월 6일(음력 10월 30일)에 감사가 주재하던 공주로 압송하였다. 이때 김 스테파노는 공주로 압송되기에 앞서 아우에게 편지를 보내, “나는 주님을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너도 아무쪼록 주님을 위해 열심히 수계하여 훗날 천당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아내에게도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요.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죽으나 사나 주님의 명에 순종하다가, 죽은 뒤에 천당에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나는 공덕이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천당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는 다시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마시오.”

김원중 스테파노 일행을 인도받은 공주 관아에서는 이들을 모두 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끝까지 신앙을 증언하였으며, 12월 16일(음력 11월 10일) 함께 교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는 사실이다. 김원중 스테파노의 아우가 공주로 와서 이들 네 명의 시신을 찾아 장사를 지내 주었다. [출처 :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김원중 스테파노는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사목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cus)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시복미사가 거행된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조선시대 주요 사법기관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며, 또한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서소문 밖 네거리 · 당고개 · 새남터 ·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순교의 길이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은 매년 5월 29일에 함께 축일을 기념한다.

복자 장 토마스(1815-1866년)

경기도 수원 느리지(현,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서 태어난 장(張) 토마스는 1866년에 순교한 장주기 요셉 성인의 육촌 형제로, 그와 함께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고 입교하였다. 이후 그들은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교회 일을 도왔다. 그러다가 장주기 요셉 성인은 충청도 배론(현, 충북 제천시 봉양면 구학리)에 정착하였고, 장 토마스는 진천 배티(현,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에 정착하였다. 당시 배티에는 장 토마스의 인척으로 생각되는 장 시몬 회장이 거주하고 있었다.

장 토마스는 이때부터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열심히 교리를 가르쳤다. 이 무렵 가까운 인척과 친구들은, 그의 본심이 순량한 탓에 그에 대해 말할 때면 언제나 ‘착한 사람’이라고 일컬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시작된 뒤, 장 토마스는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명령만을 따르기로 작정하였다. 그 뒤 얼마 안 되어 청주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와 가족들을 모두 체포하였다.

이내 진천 관아로 압송된 장 토마스는 관장 앞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관장이 “천주교를 배반하면 죽이지 않을 것이며, 너의 세간을 돌려주어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그는 “세간과 목

숨은 버릴지언정 천주교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 토마스는, 군대가 주둔하는 청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을 때 다시 영장이 “천주교를 배반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묻자, 여전히 “만 번 죽어도 천주교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한결같이 대답하였다.

이윽고 장 토마스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포졸들은 그를 군대 지휘소가 있는 장대(將臺, 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로 끌고 나갔다. 바로 그때 장 토마스는 자기의 대자가 배교하려는 것을 목격하고는 “주님을 위하여 천주교를 봉행해 왔는데, 이런 기회를 버리고 목숨을 건진다면 장차 천주님의 벌을 어찌 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권면하였다. 그런 다음, 칼날 아래 목을 드리우고 순교의 영광을 얻었으니, 당시 장 토마스의 나이는 51세였다. [출처 :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장 토마스는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사목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cus)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시복 미사가 거행된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조선시대 주요 사법기관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며, 또한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서소문 밖 네거리 · 당고개 · 새남터 ·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순교의 길이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은 매년 5월 29일에 함께 축일을 기념한다.

복자 송 베네딕토(1798-1867년)

송(宋) 베네딕토는 충청도 충주 서촌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열심히 교리를 가르쳐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송 베네딕토는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아들 가족과 함께 진천 배티 교우촌(현,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으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교우촌 신자들과 어울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났고, 이듬해 봄에는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러 다니던 한양 포졸들이 배티로 들이닥쳤다.

배티로 몰려온 포졸들은 그곳에 거주하던 송 베네딕토를 비롯하여 아들 가족 모두를 체포하여 진천 관아로 압송하였다. 그런 다음 경기도의 죽산 관아로 끌고 가서 가두었다가 다시 한양으로 이송하였는데, 이때 체포된 이들은 나이가 가장 많은 송 베네딕토와 그의 아들 송 베드로와 송 베드로의 딸, 송 베드로의 며느리인 이 안나, 그리고 이 안나의 아이 등 모두 5명이었다.

이들 가족은 한양으로 압송된 뒤에 모두 신앙을 굳게 지킨 다음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7년으로 당시 송 베네딕토의 나이는 69세였다. [출처 :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송 베네딕토는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사목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cus)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시복 미사가 거행된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조선시대 주요 사법기관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며, 또한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서소문 밖 네거리 · 당고개 · 새남터 ·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순교의 길이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은 매년 5월 29일에 함께 축일을 기념한다.

복자 송 베드로(1821-1867년)

송(宋) 베드로는 충청도 충주 서촌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장성한 뒤에는 부친 송 베네딕토를 모시면서 성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열중하였다. 송 베드로는 부친인 송 베네딕토와 함께 가족을 데리고 진천 배티 교우촌으로 이주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났고, 이듬해 봄에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하러 다니던 한양 포졸들이 배티로 들이닥쳤다.

배티로 몰려온 포졸들은 그곳에 거주하던 송 베드로의 가족 모두를 체포하여 진천 관아로 압송하였다. 그런 다음 경기도의 죽산 관아로 끌고 가서 가두었다가 다시 한양으로 이송하였는데, 이때 체포된 이들은 송 베드로와 그의 부친 송 베네딕토, 그리고 그의 딸과 며느리 이 안나, 이 안나의 아이 등 모두 5명이었다.

송 베드로는 한양으로 압송된 뒤에 신앙을 굳게 지킨 다음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7년으로 그의 나이는 46세였다. [출처 :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송 베드로는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사목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cus)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시복미사가 거행된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조선시대 주요 사법기관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며, 또한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서소문 밖 네거리 · 당고개 · 새남터 ·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순교의 길이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은 매년 5월 29일에 함께 축일을 기념한다.

복자 이 안나(1841-1867년)

이(李) 안나는 인천 재궁골의 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자 충청도 충주 서촌에 살던 교우 송(宋) 베드로의 아들과 혼인하였다. 이때부터 그녀는 남편과 함께 시조부 송 베네딕토와 시부모를 모시면서 교리를 실천하는 데 열중하였다.

송씨(宋氏) 집안이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진천 배티 교우촌으로 이주하게 되자, 이 안나도 남편을 따라 이주하였다. 그곳에서 그녀는 교우촌 신자들과 어울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그녀는 1867년 봄에 한양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으며, 진천 관아와 경기도의 죽산 관아를 거쳐 한양으로 이송되었다.

이 안나는 한양으로 압송된 다음에도 신앙을 굳게 지키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7년으로 그녀의 나이는 26세였다. [출처 :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이 안나는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사목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cus)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시복미사가 거행된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조선시대 주요 사법기관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며, 또한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서소문 밖 네거리 · 당고개 · 새남터 ·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순교의 길이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은 매년 5월 29일에 함께 축일을 기념한다.

복자 박경진 프란치스코(1835-1868년)

1835년에 태어난 박경진 프란치스코는 장성한 다음 오(吳) 마르가리타와 혼인하여 충청도 청주에서 살았다. 그들 부부는 1866년에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안전한 곳을 찾아 아들 사 형제를 데리고 진천 절골(현, 충북 진천군 백곡면)로 이주하여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였다.

박 프란치스코의 가족은 절골에서 2년간 평온하게 생활하면서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그러나 1868년에 이르러 박해가 더욱 거세어지면서 다시 위험에 놓이게 되었고, 그해 9월 5일(음력 7월 19일)에는 마침내 경기도의 죽산 포졸들이 절골로 들이닥쳤다.

이때 박 프란치스코의 가족은 포졸들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산중으로 피신하던 도중에 뽕뽕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중에서 박 프란치스코의 아내 오 마르가리타는 어린 자식을 업고 산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어 많은 매를 맞았다.

한편 가족의 사정이 궁금해진 박 프란치스코는, 동정을 살피려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동네의 한 비신자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그런데 그 비신자는 박 프란치스코에게 '내 집에 자면서 동정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며 안심을 시키고는 밤중에 뒷문으로 빠져나가 포졸들에게 박 프란치스코를 밀고하였다.

박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체포되어 아내 오 마르가리타와 함께 죽산으로 끌려갔다. 박 프란치스코는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 동생인 박 필립보와 맏아들 박 안토니오에게 소식을 전하였는데, 특히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가 들어 있었다.

“어린 조카들을 잘 보살피면서 진정으로 천주님을 공경하고, 천주님께서 안배하시는 대로 순명하여 나의 뒤를 따라오도록 하여라.”

이 편지는 집안에 남아 있던 성물과 함께 박해 중에 소실되었다고 한다.

박 프란치스코와 오 마르가리타 부부는, 이후 어떠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다. 그런 다음 1868년 9월 28일(음력 8월 13일) 죽산에서 함께 순교하였으니, 당시 박경진 프란치스코의 나이는 33세였다. [출처 :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박경진 프란치스코는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사목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cus)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시복미사가 거행된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조선시대 주요 사법기관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며, 또한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서소문 밖 네거리 · 당고개 · 새남터 ·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순교의 길이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은 매년 5월 29일에 함께 축일을 기념한다.

복자 오 마르가리타(?-1868년)

오(吳) 마르가리타의 출생지와 천주교에 입교한 사정은 알려져 있지 않고, 뒷날 박 프란치스코와 혼인하여 충청도 청주에서 살았다는 사실만이 알려져 있다. 그들 부부는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자 안전한 곳을 찾아 아들 사 형제를 데리고 진천 절골로 이주하여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였다.

박해가 더욱 거세어지면서 1868년 9월 5일(음력 7월 19일)에 경기도의 죽산 포졸들이 절골로 들이닥쳤다. 오 마르가리타는 어린 자식을 업고 산에 숨어 있다가 가장 먼저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많은 매를 맞았다. 그리고 동정을 살피려고 산에서 내려왔다가 나중에 체포된 남편과 함께 죽산으로 끌려갔다.

오 마르가리타와 박 프란치스코 부부는, 이후 어떠한 형벌에도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켰다. 그런 다음 죽산에서 함께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68년 9월 28일(음력 8월 13일)이었다. [출처 : 주교회의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서울(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4년]

오 마르가리타는 대전교구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사목방문한 교황 프란치스코(Franciscus)에 의해 2014년 8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료 순교자 123위와 함께 시복되었다. 시복미사가 거행된 광화문 광장 일대는 수많은 순교자와 증거자가 나온 조선시대 주요 사법기관들이 위치해 있던 곳이며, 또한 처형을 앞둔 신자들이 서소문 밖 네거리 · 당고개 · 새남터 · 절두산 등지로 끌려갈 때 걸었던 순교의 길이었다.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은 매년 5월 29일에 함께 축일을 기념한다.

진천 출신의 순교자 26위

성명(세례명)	거주지	순교일(나이)	순교지	순교형식
원 베드로	백곡 질마로	1813년경	공주	목사
김선화(베드로)	백곡 발래기	1866, 11, 21	청주	교수
이영준(아우구스티노)	진천 지장골	1866, 11, 23	청주	
조대대(판크라시오)	미월 새울	1866, 11, 23	청주	
김준기(안드레아)	미월 새울	1866, 11, 23	청주	
신 서방	미월 새울	1866, 11, 23	청주	
허 서방	미월 새울	1866, 11, 23	청주	
장 서방	배티	1866, 11, 23	청주	
미 서방	배티	1866, 11, 23	청주	
김성서(파비아노)	덕산 방축골	1866, 10(37)	충주	
민윤명(프란치스코)	덕산 방축골	1866, 10	충주	
김백심(암브로시오)	덕산 방축골	1866, 10(68 ~ 71)	서울	
신성순	백곡 발래기	1866, 12, 16	공주	교수
신성수	백곡 발래기	1866, 12, 16	공주	교수
이성유	백곡 발래기	1866, 12, 16	공주	교수
손관보(베드로)	백곡 용진골	1866, 12, 29(36)	청주	
여 요셉	백곡 용진골	1866, 12, 29(36)	청주	
오사롱	진천 동골	1866	청주	
미 베드로	덕산 방축골	1866	수원	
송 베드로 딸	배티	1867(17)	서울	
미 안나의 아이	배티	1867(1)	서울	
윤 바오로	백곡 통점	1867	청주	
송 바르나바	배티	1868, 2	서울	
김성회(바오로)	진천 굴티	1868, 4(45)	서울	
김 사도 요한	진천 굴티	1868, 4(33)	서울	
김조미(막달레나)	진천	1868, 4(27)	서울	

배티 인근의 순교자 무덤 28기

순교자와 묘소	묘소 위치
오반제(바오로) 1기	진천 사석 지암리
유 데레사와 남편 순교자 2기	배티 옛 성당 및 은골
이 요한의 아내와 딸 순교자 2기	삼박골
박 바르바라와 시누이 윤 바르바라 순교자 2기	백곡 공소
이 스테파노 순교자 1기	이원 새울
무명 순교자 6인 묘역	배티 성재골
무명 순교자 14인 묘역	배티 고개

[도표 출처 : 배티 성지 홈페이지]

◆백곡성당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892. 전화 043-532-5021)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배티 성지 바로 인근에 위치한 백곡 성당은 예로부터 깊숙한 산골로, 찾는 사람이 적었고 안성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말끔히 포장된 지금도 그리 인적이 흔치 않은 곳이다.

이 지방은 천해의 피난처로 박해 시대 때 수많은 교우촌이 형성됐던 곳이다. 충북 진천군과 충남 천안시 그리고 경기도 안성시가 경계를 이루는 삼각점에 위치한 이 지역은 우선 그 지세가 험해 비교적 박해의 찬바람을 피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각 지방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 교통이 편리했기에 박해 시기 은밀한 연락이나 밤을 틈탄 도주가 용이했던 것이 교우촌이 형성되기에 아주 적합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진천 톨게이트에서 차로 17.4km 남짓 안성 쪽으로 달리면 ‘삼박골 비밀 통로 순교자의 묘’라고 적힌 쏘팔 이 나온다. 배티 성지까지 약 2km,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는 이 비밀 통로는 박해 시대 때 신자들이 은밀하게 넘어 다니던 고갯길이다.

톨게이트와 이 뜻말의 중간쯤에 도로 왼편으로 바로 백곡 성당이 서 있는 것이 보인다. 백곡 성당은 박해 시대를 거쳐 신앙을 자유를 얻은 뒤 여러 번의 이전을 거쳐 1961년 7월 21일 현재의 위치에 자리하였다. 진천 본당 제2대 주임 아헌(W. Aheam, 安) 굴리엘모 신부가 기존의 공소 건물로는 도저히 신자들을 수용할 수 없어 고심하던 중 ‘경주 이씨 문중’에서 현재의 공소 부지를 기증하여 우선 임시 건물로 공소 강당을 건축하였다. 그러나 그 후 산업화와 이농현상으로 신자수가 급감하면서 새로 증축하지 못하고 여러 번의 보수공사만 거쳐 오다가 1997년 공소 경당 옆에 교육관을 신축하였고, 2004년 경당 지붕 교체 및 바닥공사를 새로 하였다.

2018년 11월 20일 백곡 공소는 노후화된 기존 성당을 대신해 새 성당과 교육관 및 사제관을 건립해 봉헌식을 거행했다. 이어서 청주교구는 2019년 8월 16일자로 진천 본당 관할 백곡 공소를 본당으로 승격하여 백곡면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임신부를 임명하고 복자 오반지 바오로를 본당 주보로 정했다.

성당 정문 옆에는 두 기의 묘가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병인박해 당시 순교한 남원 윤씨와 밀양 박씨 성을 가진 바르바라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데 이들은 시누이와 올케간이다. 남원 윤씨 집안은 본래 홍주에서 살다가 21세 손인 윤행운 때에 박해를 피해 배티 골짜기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병인박해를 당해 윤행운의 손자며느리인 밀양 박씨 바르바라(1827년생, 23세 손 윤택명 요셉의 부인)와 손녀 윤씨 바르바라가 함께 체포되어 신앙을 굳게 증거한 뒤 매를 맞아 순교했고, 그 시신은 가족들에게 거두어져 배티 성재골에 안장되었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들의 순교일은 1866년 10월 20일이다.

이들의 유해는 본래 배티 뒷산 성재골의 무명 순교자 묘역(현 6인 무명 순교자 묘역) 안에 위아래로 나뉘어 안치되어 있었는데,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을 1970년대 초에 후손들이 다시 찾았다. 1977년 평택에 사는 순교자의 후손들이 묘를 선산으로 이장하기 위해 배티를 찾았다. 이를 알게 된 배티와 백곡 공소의 신자들은 후손들을 만나 교회에서 대대로 잘 돌보며 기도드릴 수 있도록 설득하여 두 순교자들의 유해를 백곡 공소 경내로 이장한 뒤 깨끗하게 단장하였다. 2019년 12월 6일에는 청주교구청에서 본당 주보인 복자 오반지 바오로의 유해 분배 예식을 거행하고 유해를 분배받아 본당에 모셨다. 백곡 성당은 복자 오반지의 활동지 중 하나이다.

백곡 성당을 찾는 순례자들은 순교자들의 자취가 풍부하게 남아 있는 배티 성지를 함께 둘러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배티 성지는 최양업 신부가 장마철이면 머물며 집필과 사목활동을 했던 성당 겸 사제관, 안성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모셔진 14인의 무명 순교자 묘역 그리고 1997년 봉헌한 최양업 신부 기념성당과 2012년에 봉헌한 최양업 신부 선종 150주년 기념성당과 2014년에 축복식을 가진 최양업 신부 박물관, 야외 제대와 십자가의 길 14처 등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순교자들의 숨결에 젖어들 수 있는 사적들이 풍성하다. [출처 : 주평국, 하늘에서 땅 끝까지 - 향내나는 그분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톨릭출판사, 1996, 내용 일부 수정 및 추가(최종수정 2019년 12월 14일)]

백곡 공소의 순교자 무덤

백곡 공소 앞에는 지금 2기의 순교자 무덤이 나란히 안장되어 있다. 왼쪽이 올케인 ‘밀양 박씨’(박 바르바라)의 무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시누이 ‘남원 윤씨’(윤 바르바라)의 무덤이다. 이 둘의 무덤은 본래 배티 뒷산 성재의 무명 순교자 묘역(현 6인 묘역) 안에 위아래로 나뉘어 안치되어 있었는데,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을 1970년대 초에 후손들이 다시 찾았다.

순교자들의 무덤을 다시 찾은 경위와 공소 경내에 안장한 과정은 이러하다.

남원 윤씨 집안은 본래 홍주에서 살다가 21세 손인 윤행운 때에 박해를 피해 배티 골짜기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병인박해를 당해 행운의 손자 며느리인 밀양 박씨 바르바라(1827년생, 23세 손 윤택명 요셉의 부인)와 손녀 윤씨 바르바라가 함께 체포되어 신앙을 굳게 증거한 뒤 매를 맞아 순교하였으며, 그 시신은 가족들에게 거두어져 배티 성재에 안장되었다.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들의 순교일은 1866년 10월 20일이다.

행운의 아들이자 순교자 윤 바르바라의 부친 윤기현(바오로, 1794년생)과 부인 강릉 김씨(루치아, 1801년

생)는 다행히 병인년의 박해를 피할 수 있었으나, 이듬해에는 모두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이때 먼저 부인인 루치아가 1867년 8월 12일 순교하였고, 11월 15일에는 남편 바오로도 순교하였다. 현재 루치아의 무덤은 배티 고개에 있는 무명 순교자 14인 묘역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순교자 바오로의 무덤은 목천 성거산 아래(천안시 직산 석점)에 모셔져 있다.

이후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녀야만 했던 순교자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조상들의 묘를 잇고 살았다. 그러다가 순교자 윤기현(바오로)의 아들인 윤태명(요셉)의 외손주 사위인 원두현 씨가 박해 후 배티에 거주하게 되었고, 순교자 윤기현의 고손 윤재웅(베드로) 일가는 아산 도고 유동에서 살다가 청양의 깊은 산골로 이주하였다. 윤재웅의 집안에서는 청양으로 이주하기 직전, 무덤이 분명한 배티 순교자 박 바르바라와 윤 바르바라의 별초를 배티의 원두현 씨에게 부탁하였다. 박 바르바라는 원두현 씨의 처 할머니가 되고, 윤 바르바라는 처 고모 할머니가 된다.

순교자의 무덤을 돌보던 원두현 씨는 그 후 평택 신대리로 이주하면서 배티의 박 회장에게 별초를 부탁하였고, 그는 행방 전까지 순교자의 무덤을 돌보다가 아들에게 이 일을 맡겼다. 그러나 이후에도 오랫동안 순교자 윤씨의 후손들이 배티를 찾아가지 않으면서 순교자 무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던 중 25세 손 윤예섭이 목천에서 평택으로 이주하면서 우연히 고종 매형인 원두현 씨와 이웃해 살게 되었으며, 사돈(박 회장의 손자와 윤예섭의 자녀가 혼인함)인 박 회장의 아들 박진규 씨에게 문의하여 배티 순교자 할머니들의 무덤을 찾고, 장손인 요한이 논 100평을 사서 무덤 관리를 부탁하였다.

1977년 평택에 사는 순교자의 후손들은 그 무덤들을 선산으로 이장하기 위해 배티를 찾았다. 이를 알게 된 배티와 백곡 공소의 신자들은 후손들을 만나 “선산에 모셔 간다 해도 후손들이 잘 모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모셔 두면 우리 교회에서 대대로 잘 돌보며 기도드릴 수 있을 것이니, 이곳에 그냥 모셔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고 하여 이장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유해를 백곡 공소 경내로 이장한 뒤 깨끗하게 단장하였다. [출처 : 류한영 / 차기진 공저, 교우촌 배티와 최양업 신부, 양업 교회사 연구소, 169-172쪽]

한미희 수산나